

초·중등학교 지형 및 기후 단원의 계열성 분석

- 5, 7 및 10학년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김진국*

Analysis of Sequence of Geomorphology and Climate Chapter in the Textbook of Elementary to High School

- Focused on the Textbook for 5th, 7th and 10th Grade Learners -

Jin-Kuk Kim*

요약 : 제 7차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교과서가 편찬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교과서는 학습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 교재이다. 학습자가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사고의 폭과 깊이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용의 계열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 7, 10학년 지형 및 기후 관련 교과서 내용을 사실, 개념, 일반화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지리 지식의 계열적 조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계열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지리학의 학문적 구분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내용 조직에서 탈피하여 통합 목표 제시를 통한 내용 조직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지지형, 해안지형 등과 같이 자연환경의 범위 설정 및 선정된 범위와 학년을 축으로 한 지식 매트릭스의 결정, 교육과정 연구·개발진과 교과서 집필진과의 연계 등 지리 교과서 출판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출판되는 지리 교과서 개발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지리 지식의 사실·개념·일반화, 내용 조직, 교과서 내용의 계열성, 지리 교과서 개발

Abstract : The new textbook will be published with a notice of revision plan of the 7th Geography curriculum. The textbook is very important materials to learners because it decides the direction and scop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school. Most of all, the sequence of textbook contents is very important for learners to deepen and widen their thought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For this reason, in this study, after I divide the contents of geomorphology and climate part in the textbook for 5th, 7th and 10th grade learners into facts, concepts and generalization and then analyze them, I will present the methods for organizing the sequence of geography knowledge. To procure the sequence, I will avoid organizing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focusing on academical distinction of geography and organize the textbook content through the presentation of integral objects. And also, to complement the publication system in geography textbook, the decision of knowledge mattress based on the selected scope and grad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team of researching and developing the curriculum and authors, and so on. I expect this study to help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textbook in the future.

Key words : fact, concept and generalization of geography knowledge, the organization of the contents, the sequence of textbook contents,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textbook

* 안산 송호고등학교 교사(Teacher, Ansan Songho High School), ginkuk@hanmail.net

I. 서론

1. 연구 목적

학습자는 초·중등학교에서 배움을 통하여 사고의 폭과 깊이를 심화 확대해간다. 학습의 연속성을 고려해 볼 때 지리 학습의 주요 개념들은 고등 정신 기능 함양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이경한, 2001, 2). 지리 교육계에서도 이와 같은 기본 개념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개념 선정에 관한 논리적 근거나 합의가 부족하였으며 선정된 개념들의 계층적 관계와 계열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리 교육을 위한 개념 선정이라기 보다는, 지리학의 개념 추출에 머물렀다(조성욱, 2002, 284).

학습자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학습하는 지리 지식의 계속성 및 계열적 확장을 통하여 지리적 사고력이 증진되어야 한다. 초·중등학교 간 지리 교육과정 내용의 계열성이 부족하다면 지리를 배우는 학습자 입장에서 지리 개념의 중복 및 비약으로 학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리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 개념의 계열적 조직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교육과정에서 지리 지식의 계열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 접하게 되는 지리 지식의 중요 원천은 교과서이다. 교과서가 학습 교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 및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가장 클 것이다. 교과서가 학교 교육을 실천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학습 교재 중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습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제한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박강용, 2002, 2). 교수·학습의 기준은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중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교과서를 교수 학습 내용의 준거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교사들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된 교과서에 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 문서로서 고시된 교육과정 내용은 동일한데 그것을 재해석한 교과서 내용은 출판사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가르치는 지리 교사 및 교과서 변인에 의하여 학습의 내용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²⁾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태 분석으로서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구현된 5, 7, 10학년의 자연환경 단원 교과서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 문서가 각 학년별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 학년별 자연환경 관련 내용의 계열성은 확보되었는가? 에 대하여 분석하고, 계열적 내용 조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년 구분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형식적 구분으로 단절이 아니다. 배우는 내용은 계속적이며 계열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지리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는 5, 7, 10학년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학습의 계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 및 이에 준하여 출판되는 각급 학교 교과서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지리 지식의 계열적 조직이 이루어지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간에 전혀 새로운 지리 지식을 가르칠 것인가? 초·중·고등학교 간 지식이 연계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각자의 교육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이러한 다양한 교육관을 수렴하여 학교 급별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준 문서로서 각급 학교 교수·학습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연환경 단원의 제 7차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이다.

5학년 I단원 우리 국토의 모습 중 (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활과 7학년 중부·남부·북부 지방의 생활 중 일부 단원, 그리고 10학년 일부 단원에서 자연환경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찬된 5학년 교과서와 동일 출판사에서 제작한 7학년 및 10학년 교과서³⁾의 자연환경 부분을 사실, 개념, 일반화로 구분하여 각 지식별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지리 지식을 사실, 개념, 일반화로 구분할 때 1차적으로 본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분류한 후, 본교에 근무하는 지리 담당 교사 3명에게 의뢰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사실·개념·일반화 지식 분류표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⁴⁾

표 1. 제 7차 교육과정 자연환경 단원 내용 체계표

5학년	7학년	10학년
(1) 우리 국토의 모습 (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생활	(2) 중부 지방의 생활 (가) 우리나라의 중앙부 (3) 남부 지방의 생활 (가) 해양 진출의 요지 (라) 관광 산업이 발달한 제주도 (4) 북부 지방의 생활 (가) 대륙의 관문	(2)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가) 지형과 인간생활 (나) 기후와 인간생활

출처: 교육부, 1998.

II.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계열성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한 것으로 학생 및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학습 자료이다. 지리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각 출판사별로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 비교(최일순, 1991; 정선주, 1994; 민경화, 2001),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각종 지명에 대한 연구(신동승, 1995), Romey 교재 분석 방법을 이용한 교과서의 탐구 지향성 평가(심정규, 2002), 교과서 국제 비교(이상선, 1995; 정민, 1995; 손용택, 2004)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하여 교과서 내용 및 체제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선행 연구는 출판사별 국가별 횡적 비교를 통한 교과서 체제 및 내용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교과서 내용의 연계성 분석은 박종천(1993, 58-5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지리 학습의 주제별 내용 중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지형과 기후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초·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지형에 관한 주제별 내용의 연계성 분석에서, 대부분의 학습 주제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계열과 순서가 적절하게 결정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내용의 반복 및 내용의 확대와 심화가 급격히 이루어져 학습 내용이 어렵고 복잡함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상세화를 통하여 현장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 교과용 도서 개발의 준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상세화를 통한 사회과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8). 표 2는 교육과정 상세화 내용 중 지형 및 기후

관련 내용만을 발췌한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추상적이며 포괄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교과서이다. 그런데 교과서 개발 역시 검정 제도의 채택과 더불어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각 출판사별로 교과서의 내용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상세화는 지리 지식을 사실, 개념, 일반화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교과서 집필 및 3~10학년 지리 영역의 내용 연계성과 더불어 개념의 표준을 위한 준거를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는 교과서 집필 및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교육과정 상세화 작업으로 '지형', '기후', '인간생활과 환경', '자연재해'를 중심 개념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급별 교육과정 내용 구성 방식에서 오는 제도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념의 중복 및 비약 등 지리 지식의 계열적 조직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10학년의 경우 사실, 개념, 일반화의 분류에서 사실과 개념의 구분이 모호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사실적 지식의 경우에도 개념적 지식과 유사하게 나열되어 있어 추상적이며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상세화를 통한 기준 제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사실, 개념, 일반화는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 분류체제로 특정 사실들을 중심으로 한 개념 습득과 이해, 그리고 이러한 개념 간 관계를 통한 일반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념, 일반화는 각기 다른 차원에서 기술되고 있다. 사실, 개념, 일반화가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0학년의 내용 체계(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8, 184)를 보면 사실에서는 '지형분류·유수에 의한 지형·건조

표 2. 지형 및 기후 관련 교육과정 내용의 상세화⁵⁾

학년	단원명	사 실	개 념	일 반 화
5학년	우리국토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간 및 평야 지역의 인구 분포, 교통, 산업 · 지형 및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지역의 강수량, 기온 · 다른 지역과 비교한 우리지역의 기후 특징 · 자연환경을 이용한 의식주 · 자연환경의 슬기로운 이용 ·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 ·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과 생활 · 기후와 생활 · 환경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은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을 슬기롭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종류 · 주요 발생 지역과 발생시기,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 재해에 따른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국토를 가꾸기 위해서는 균형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국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7학년	중부지방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고서저의 지형 · 동서간의 기온차가 큼 · 해안선 복잡 · 간석지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맥, 하천, 평가, 해안, 갯벌, 기온차, 계절풍, 집중호우 · 태풍, 장마전선, 눈새바람, 간척지, 간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 기후 등 자연환경의 지역 차이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남부지방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을 제외한 낮은 산지 · 하천 중 · 상류의 분지 발달 · 하류의 비옥한 평야 · 온난한 기후 · 많은 강수량 · 해안과 내륙의 기온 차 · 기후에 적응한 농업 · 기후에 적응한 가옥 · 화산지형 · 따뜻한 해양성기후 · 이국적인 자연환경 · 난대성 과수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고원, 평야, 하천, 분지, 삼각주, 리아스식 해안 · 계절풍, 연교차, 연평균기온, 강수량, 태풍, 대륙성 기후, 화산지형, 해양성기후, 난대성 과수재배 · 가옥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하천의 중 · 상류는 분지가 형성되어 도시가 발달되고, 하류는 기름진 평야가 형성 · 온난한 기온과 많은 강수량은 농업 발달에 유리 · 넓은 평야, 따뜻한 기후, 발달된 관개시설을 갖추면 대규모 곡창지대가 형성 · 지역주민의 생활은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에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발달한다. · 특징적 가옥, 자연환경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지만 관광산업의 발달로 고유한 전통이 소멸되거나 자연환경이 훼손됨
	북부지방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동쪽은 높은 산지이고, 서쪽은 평야발달 · 동해안 단조롭고 서해안은 복잡 · 대륙성 기후, 적은 연강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사면, 완사면, 조석간만 · 천일제염, 가옥구조, 대륙성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에 따라 그 지방의 농업, 가옥구조 등의 주민생활에 따라 달라진다.

표 2. 계속

학년	단원명	사 실	개 념	일 반 화
10학년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 지형분류, 유수에 의한 지형, 건조지형, 카르스트지형, 빙하지형, 해안지형, 화산지형 · 산지, 고원, 조륙운동, 화산활동, 인간의 지형이용 · 하천지형, 평야, 유수, 빙하 · 해안지형, 조석, 파랑, 해수면변동, 지반용기, 해안과 해양, 다양한 인간들의 활용방식	· 조륙운동, 조산운동, 화산활동, 풍화작용, 침식작용, 퇴적작용, 안정육괴, 지향사, 홍적층, 충적층, 산지, 고원, 하천, 지형, 평야, 해안지형, 조석, 파랑, 해수면변동, 지반 용기	· 지형은 내인적 작용과 외인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한다. · 인간은 지형형성의 영역에 속하며 지형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 기후의 구성,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의 기후요소, 위도, 수륙분포, 지형 등의 기후 인자 · 기후구분, 기온, 식생, 강수량, 기후차, 인간활동에 영향 · 우리나라의 기후, 큰 한서차, 대륙성기후, 기온분포는 동서차와 남북차가 큼, 하계집중형의 호우성강우, 커다란 강수량의 지역차, 지역 주민의 의·식·주에 영향, 온실효과, 도시기후,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	· 기후요소, 기후인자, 기후지역, 대륙성기후, 대륙도, 호우성강우, 지역차, 편현상, 온실효과, 도시기후, 집중호우, 도시열섬	· 기후의 지역차는 인간생활의 차이를 가져온다. · 인간이 기후요소와 기후인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후변화가 발생한다.
		· 자연재해의 종류, 지진, 화산활동, 산사태, 지형과 관련되는 재해, 태풍, 가뭄, 홍수, 기후와 관련된 재해 · 사막화,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간섭 · 인간의 환경지각패턴, 그에 따라 상이한 대응,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대책	· 지진, 화산활동, 산사태, 자연재해, 태풍, 가뭄, 홍수, 사막화, 인간에 의한 환경변화, 환경지각	· 자연재해는 자연의 힘뿐만 아니라 인간이 변화시킨 환경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자연재해에 대한 환경지각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이에따라 재해에 대한 대책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형·카르스트 지형' 등으로, 개념에서는 '조륙운동·조산운동·화산활동·퇴적 작용' 등으로, 일반화는 '지형은 내인적 작용과 외인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한다' 등으로 기술하여 사실, 개념, 일반화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지식들 간의 연계성 또한 모호하게 기술되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 설정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미비점과 더불어 기존의 교과서 분석 연구는 주로 각 출판사별 내용의 횡적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교과서 간 내용 비교에 주안점을 두으로써 학습자 입장에서 초·중등학교에서 배울 지리 지식의 계열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출판사에서 제작된 중등학교 교과서를 선정하여 초·중등학교 간 교과서 내용의 계열성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특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지리 영역이 다루어지고 있는 5, 7, 10학년 지리 내용 중 자연지리 관련 주요 개념군은 무엇이며, 이러한 개념군들의 종적인 계열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출판사별 횡적인 비교보다는 학년별 종적 비교를 통하여 계열적 조직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해석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의 경우 대단원과 중단원 정도만 제시하여 교과서 집필진에게 많은 재량권이 주어졌다. 교과서의 다양화를 통한 경쟁은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나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초·중등학교 간 학습 연계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 현재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교과서의 학교 급별 지리 지식의 연계성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지리 교육에서의 계열성: 미국 교육 과정을 사례로

교육과정 내용 조직에서 계열성이 중요한 논리로 등장한 것은 타일러(Tyler)의 영향이다. 그는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원리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계속성이란 특정 학년에서 학습하기에는 부족한 중요 개념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며 계열성이란 동일한 학습 경험을 반복 제시하는 단계를 넘어서 좀 더 넓고 깊은 의미가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것이다(강봉규·이종성, 1985, 75). 선행 학습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전개시키기 위하여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개념의 폭과 깊이가 심화·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을 계열성있게 조직하는 방법은 크게 교육 내용 자체의 논리적 구조와 학습자의 심리적 발달에 따

른 배열로 구분된다. 심리적 발달에 따른 배열은 학습자의 발달 측면에서의 계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종 학습 위계 이론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한다. 피아제의 공간발달이론 및 여타 공간 인지 이론 등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부합되게 지리 교육의 주요 개념을 조직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심리적 발달과 지식의 논리적 구조에 따른 내용 조직은 따로 구분하기 보다는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 내용 조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의에서는 교육 내용 자체의 논리적 구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5, 7, 10학년에 지리 교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학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다는 경험적 검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리학의 연구 대상은 공간이므로 지리교육 역시 공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의 활동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축의 좌표 상에 놓인다고 볼 때, 지리교육의 학습 소재는 모든 인간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그 범위 설정은 필연적이다. 지리교육의 범위는 모학문의 구분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속성과 계열성 측면에서 보면 개념의 중복 및 내용의 비약 문제가 있다. 지형과 기후를 범위로 보았을 때, 그 범위 안에 담고 있는 중요 개념의 계속성과 계열적 조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은 교육과정에서 계열성 확보를 위한 내용 배열

표 3. 교육과정 내용 배열의 주요 원칙

기 준	하위원칙	내용 배열 방법
세계(현상)	공 간	·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 아래에서 위로 ·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시 간	· 연대기(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물리적 속성	· 면적순 · 인구순
개 념	부류관계	· 동식물을 개관하고 다시 포유류, 양서류, 조류 등의 순으로
	명제관계	· 가정-결과 관계, 이론-사실 관계
	정 교 성	· 나선형 교육과정
	논리적 선행 요건	· 논리적 필요충분조건
학습이론	경험적 선행 요건	· 앞의 내용이 다른 요소의 학습을 촉진할 경우
	친 속 성	· 어린이에게 친숙한 내용부터(자문화 타문화)
	곤 란 성	·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흥 미	· 학습자가 흥미를 보이는 내용부터
	내 면 화	· 발달 단계에 따라

출처: 권오정·김영석, 2003, 122.

의 주요 원칙을 나타낸 것이다. 지리 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표 3에서 제시한 주요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동심원적 확대법 및 나선형 교육과정에 의한 내용 구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최상위 부분에서의 동심원적 확대법 뿐만 아니라 지리를 학습하는 학년 단계에서 특정 개념들의 계열적 조직 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이라는 가까운 공간에서부터 세계라는 먼 지역'으로의 공간적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계열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학습자 주변의 가까운 곳에 소재한 지형을 학습하고 먼 세계 지역의 지형을 학습했다고 하여 계속성 및 계열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 7, 10학년에서 지형 개념이 학습된다고 하면 학년별로 지형 개념의 계속성과 계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형'이라는 개념의 계속성은 있으나, 계열성 없는 내용 조직은 학습 내용의 중복 또는 비약의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즉, 지형이라는 실체 속에 담을 내용의 계열적 조직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념-주제 중심의 내용 조직, 동심원적 확대법에 의한 내용 조직 등 상위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내용 조직

방안이 논의되었다면 그 속에 담을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른 학년 별 내용의 계열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교과서에서는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발달 정도와 학년 간 내용의 계열성과 범위에 적합하게 학습 활동을 경험하는 것은 학습자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홍용표, 2003). 미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지리교육의 지침을 제공하고 각 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구현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테네시 주 및 루이지애나 주의 사례를 통하여 학년별 지리 지식의 계열적 조직을 분석하였다. 테네시(Tennessee) 및 루이지애나(Louisiana) 주의 경우 '공간적 관계속에서의 세계(world in spatial terms)', '장소와 지역(places and regions)', '자연체계(physical systems)', '인문체계(human systems)', '환경과 사회(environment and society)', '지리학의 이용(uses of geography)'이라는 6개 중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년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4와 표 5는 미국의 국가표준 지리 교

표 4. 테네시 주의 '공간적 관계속에서의 세계' 표준안

목표 학년	공간적 관계속에서의 세계: 학생들은 공간적 관계속에서 정보를 획득, 처리, 보고하기 위하여 지도, 지구본 및 다양한 지리적 표현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이해한다.
K학년	· 지구본 및 지도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 · 위, 아래, 왼, 오른, 가까운, 먼과 같이 개인적 방향을 사용한다. · 학생들의 가정 및 학교와 같이 지역사회와 장소들을 입지시킨다.
1학년	· 지도 및 지구본은 특정 장소를 표현하거나 모델임을 인식한다. · 가시적 표현물 위에 학생의 가정, 이웃 및 학교 등을 입지시킨다. · 입지 및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징 및 범례를 이용한다. · 지리적 자료로 표현한 다양한 형태의 상징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상징들을 입지 및 방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학년	· 지구본에 표현된 반구, 극 및 적도는 지구 위치를 나타내는 모델임을 기술한다. · 자연적 지역들이 자연적 특징, 기후, 식생 및 천연자원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지도 위에 표현된 것을 인식한다. · 지도 및 지구본 위에 적도, 대륙, 해양 및 반구를 표현하여 세계를 구분한다. · 지도는 제목, 축척, 상징, 범례, 경위도, 방향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3학년	· 점, 선, 면과 같은 공간적 요소들이 지도 및 지구본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 상대적, 절대적 위치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 주요 방향 및 간선 방향을 사용하여 지도 위에 장소들을 입지시킨다.
4학년	· 초기 미국 개척 시대가 포현된 지도 또는 지구본 위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을 위치시킨다. · 주요 방향 및 간선 방향, 경위도, 시간대 개념들을 이용하여 지도위에 장소들을 위치시킨다. · 지도 위에 북미 초기 탐험가들의 경로를 입지시킨다.
5학년	· 지도 또는 지구본에 미국의 주요한 자연적 특징 및 도시들을 입지시킨다. · 미국 및 테네시 주 내에서 각 위치들의 경· 위도 및 지구적 네트워크와 시간대를 이해한다. · 지역사회의 발전 및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들로서의 지형, 기후 및 천연자원을 인식한다.

출처: Poul, C. B., 2002, 11-90.

표 5. 루이지애나 주의 사회과 내용 표준

최상위내용	차하위내용	하위내용		
		K~4	5~8	9~12
자연과 문화체계 (Physical and Cultural Systems)	A. 공간적 관계속에서의 세계 (The World in Spatial Ter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 지구본, 그래픽, 다이어그램, 위성사진 및 이미지 등과 같은 지리적 표현물의 이용, 특징 기술 및 확인하기 · 지도 및 지구본에 지리적 특징 및 장소에 대한 위치화 및 해석하기 · 문제 해결 및 지리적 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지도, 그래프, 차트 및 다이어그램 구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지도 및 지리적 표현물, 도구의 유형 및 기능 특징을 기술하고 확인하기 · 공간분포 및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도, 지구본, 그래픽, 차트 및 d-base를 개발하고 이해하기 · mental map skill을 이용하여 장소 및 지리적 특징들에 대한 정보를 배열하고 조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문제를 해결,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현물, 도구 이용하기 · 장소 및 지역에 대하여 조직된 mental map를 가지고 지리적 정보 및 복잡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조직하기

출처: Urbatsch, L., 1997, 49-50.

육과정을 테네시 주 및 루이지애나 주가 상세화한 것 중 '공간적 관계속에서의 세계'와 관련된 학년별 표준안이다.

'공간적 관계속에서의 세계'라는 중요 개념을 학습하기 위하여 지도, 지구본, 입지, 주요 방향 및 간선 방향, 시간대, 경·위도 등의 차하위 개념들을 학년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학습자의 개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저학년에서는 지도 및 지구본의 실체를 파악하고 고학년으로 가면서 지도 및 지구본을 학습 도구로 하여 절대적 위치 및 상대적 위치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 또한 도로 등의 인문적 경관 및 지형·기후 등의 자연적 경관에 대한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하고 있다.

표 5는 '자연과 문화 체계'라는 최상위 개념의 하위 내용으로 '공간적 관계속에서의 세계'를 학습내용으로 하는 루이지애나 주의 사례이다.

테네시 주와 비교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기능(skill)에 주안점을 두어 내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간적 관계속에서의 세계'라는 주제를 학습하기 위한 학년별 지침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리교육과정은 6개의 동일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 급별로 18개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정 목표 및 구성체계, 표현 방법 등에 있어서는 주별로 차이를 보인다(김진국, 2005). 테네시 주 및 루이지애나 주 역시 제시된 목표 및 구성체계는 다르나 지리학의 학문적 구분에 의한 단원 조직보다는

선정 주제들에 대하여 학교 급별 계열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지형 및 기후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초등학교에서 학습하는 사실, 개념, 일반화된 지리 지식은 중등학교 지리 지식의 기초가 되며 이러한 기초 지식과 중등학교 때 학습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사고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킨다. 표 6~표 8은 초·중등학교에서 언급되는 지리 지식을 사실, 개념, 일반화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5, 7, 10학년 교과서 분석의 경우 계속성과 계열성 확보보다는 지형학 및 기후학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급별로 나열함으로써 학문에서 중요한 개념을 논리적 구조에 맞게 계열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동위도상의 서울과 강릉 기온 비교 시, 5학년의 경우 사실 부분에서 '서울은 강릉과 비교하여 여름에 더 덥고 겨울이 더 춥다', 7학년 일반화 부분에서는 '강릉은 태백산맥과 난류의 영향으로 영서지방보다 겨울 기온이 높다', 10학년의 경우 '남북 방향 산지는 겨울 기온의 동서차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술하여 5학년에서는 사실을, 7학년에서는 그 원인을 기술하여 학습자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있으나 10학년에서는 태백산맥을 단지

표 6. 5, 7, 10학년 사실의 계열성 분석

	5학년	7학년	10학년
산지지형	· 잇달아 솟은 산, 많은 산	· 소백산맥의 지형적 장애 · 제주도에 발달한 화산섬, 하천 미발달 · 개마고원에 발달한 용암대지 · 백두산: 화산지형 및 분화구	· 지형에는 산과 평야, 바다가 있음 · 지표는 산지, 골짜기, 평야, 해안으로 이루어짐 · 산지: 산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대 · 고원: 산지에서 높낮이 변화가 심하지 않은 지역이며, 침식 및 퇴적된 평탄면이 용기한 지형(ex) 데칸, 컬럼비아, 티베트, 영서 고원, 개마고원, 진안고원, 운봉고원 · 화산과 지진 활동: 판과 판의 경계에서 활발
해안지형	· 해안선이 굽이진 바닷가 · 3면이 바다	· 다도해(목포~여수 사이)	· 파랑과 조류 작용에 의하여 암석·사빈·갯벌해안이 발달 · 동해안은 암석 해안과 사빈 해안 발달 · 암석 해안은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나타나며 해안절벽, 바위섬, 촛대바위, 해식동굴 등이 절경임 · 암석 해안에는 어촌이 발달하기도 함 · 사빈 해안: 모래의 퇴적은 만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형성, 석호 발달 · 현재의 해수면은 밀물과 썰물에 의하여 달라짐 · 황해안: 약 3.1m-8.5m의 조차가 있음
하천과 평야		· 한강상류의 침식작용 및 침식분지: 춘천, 충주 · 한강하류의 퇴적 작용: 김포평야 등 넓은 평야 발달 · 금강유역: 청주 대전 등의 분지와 논산평야	· 하천: 평야 형성 및 주변 지역에 용수 공급 · 하류에는 충적 저습지가 내륙 산지 하천 중·중상류에는 침식분지와 곡지평야 발달 · 하천 중상류: 침식 분지가 발달 · 하천 하류: 일본인들의 자본과 토목 기술 발달, 우리나라 농민의 노동력으로 개간이 이루어짐, 삼각주 발달 · 범람원: 최후 빙기때는 골짜기 · 낙동강 주변 산줄기: 곡지 평야 발달
기 온	· 더운 여름: 삼베나 모시, 등등거리 이용 · 추운 겨울: 무명이나 비단 이용 · 계절 및 절기에 따른 음식: 꽃전, 진달래꽃으로 만든 떡, 보신탕 · 강릉과 비교하여 여름에 더 덥고, 겨울이 더 추운 서울	· 감나무가 자랄 정도로 따뜻한 강릉 · 초여름 경기·영서 지방의 동풍에 의한 가뭄 피해 · 겨울이 춥고 긴 북부 지방 · 북부지방에 발달한 음식: 냉면	· 영서 고원 일대는 수도권에 비해 5℃이상 낮음 ·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낮은 때: 해뜨기 직전 · 적도 지방: 연중 고온 · 강릉 오죽헌에 자라는 대나무 · 열대, 한대, 건조 기후 지역의 의상 · 열대 지역의 원시 이동식 농업과 플랜테이션 · 열대 계절풍 지역의 벼농사 발달 · 냉온대 기후대의 대륙서안에 발달한 지중해식 농업과 혼합농업 · 벼의 생육 기간과 벼 주요 재배 지역 · 전지구의 지구온난화와 도시 지역의 인공열
강 수		· 북서계절풍에 의한 영서 산간 지방의 많은 눈, 제주도: 다우지역	
기후와 생활	· 온돌, 대청마루, 사방이 막힌 건물, 한옥 처마의 역할	· 개방적인 제주도 가옥 · 폐쇄적인 북부 지방의 가옥 · 제주도: 아열대 작물 재배(수입 농산물 개방에 따른 어려움) · 관동 지방의 대관령과 평창군: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 관광 자원의 보고	· 고랭지 농업 발달
지형과 생활		· 진안고원에 발달한 고랭지 농업과 목축업	· 지형 변화: 경지 확장, 목초지 조성 등으로 식생이 제거되면 사면의 침식이 활발, 하천에 변화 유발 · 산지와 고원은 목축이나 고랭지, 여가 공간으로 이용 · 인간에 의한 지형 변화
기 타		· 북부 지방의 경우 80%가 삼림, 우리 나라 최대의 삼림 지역: 개마고원	· 토양: 영서 지방의 경우 토양의 수분이 안정적으로 공급 · 도시 주변 저습지: 시가지로 변모, 시설 원에 농업 발달 · 태풍에 의한 피해

표 7. 5, 7, 10학년 개념의 계열성 분석

	5학년	7학년	10학년		
산지지형	· 지형 · 산간지역	· 지형 · 침식분지 · 침식작용 · 퇴적작용 · 분지 · 화구호 · 용암동굴	· 기생화산 · 분화구 · 나리분지 · 화산지형의 차이 · 용천 · 용암대지	· 지형형성과정 · 내인적작용 · 외인적작용 · 습곡 · 빙하지형 · 화산 · 대규모산지 · 중간규모의산지 · 용기량	· 고위평탄면 · 지하수면 · 침식, 운반, 퇴적 · 작용 · 기반암 · 감입곡류하천 · 자유곡류하천 · 침식분지 · 곡저평야 · 차별침식
해안지형	· 해안지역	· 갯벌 · 밀물 · 썰물 · 만조 · 간조	· 조석간만 · 침수해안 · 리아스식해안 · 다도해	· 사빈과 사빈해안 · 사주 · 최후빙기 · 조차 · 신생대 제4기 · 파랑과 조류	· 압석해안 · 갯벌해안 · 갯벌 형성 · 해안단구 · 사구와 석호
하천과 평야	· 평야지역	· 평야	· 선산지 · 하안단구 · 퇴적평야	· 측방침식 · 하방침식 · 삼각주	
기 온	· 꽃샘바람 · 습기 · 건조 · 날씨와 속담	· 월평균기온 · 동위도상 겨울 기온비교	· 대륙성기후	· 기후요소 · 기후인자 · 기후의 지역차 · 점이지대 · 기단 · 기온역전현상	· 입사량 · 대기대순환 · 기후대 · 사바나기후 · 지구온난화 · 열섬현상
바 람	· 풍차	· 높새바람	· 편형수		
강 수	· 장마 · 눈	· 강수량		· 하천범람 · 집중호우	· 장마전선
기후와 생활	· 농가월령가 · 토시와 버선	· 울릉도 투막집 · 제주도 전통가옥	· 기후 · 고랭지 농업	· 목축업 · 우대기	· 고랭지농업 · 벼농사 · 유목 · 기업적 방목 · 상업적 곡물농업 · 지중해식농업 · 혼합농업
지형과 생활		· 유역변경식 발전소		· 인간활동에 의한 지형변화 · 지반침하	· 인공제방 · 하천유역 난개발
기 타		· 위치 · 식생	· 토양	· 토양과 식생대 · 라테라이트 · 적색토 · 체르노젼	· 사막토 · 토드졸토 · 툰드라토 · 자연재해

‘남북 방향 산지’라고 용어만 변경하고 있다. 결국 교사는 중학교 때 학습한 원인에 대하여 동일한 설명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표 8의 7학년 해안지형의 경우 중부 지방 및 충청지방의 해안지형에서 언급한 내용은 대동소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만 바꾸어 반복 학습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비슷하게 대관령의 고랭지 채소 재배와 갯벌의 양식장 이용은 5, 7, 10학년에서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개념의 확장까지 이르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동일 내용의 반복 뿐만 아니라 개념의 비약도 발견되고 있다. 5, 7학년의 빙기·간빙기와 관련된 내용은 7학년 해안 지형에서 ‘빙기 때 황해안은 육지의 바닷물이 채워지면서 복잡해졌다’라는 내용과 10학년 하천과 평야 부분의 ‘범람원은 최후 빙기 때 골짜기였다’라는 내용이다. 빙기와 간빙기의 두 시기로 구분한다면 이 시기에 우세하게 형성되는 지형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교과서 구성에서 중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해안 지형

표 8. 5, 7, 10학년 일반화 지식의 계열성 분석

	5학년	7학년	10학년
산지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동쪽은 높은 산이 있고 고개가 많으며 숲이 우거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 지방의 큰 강은 대체로 황해로 흐르며, 큰 강 유역에는 분지와 평야가 발달함 · 관동지방은 산지가 많아 경지 비율이 낮고, 밭농사가 행해짐 · 북부 지방의 북동부는 높고 험준한 산지가 넓게 분포 · 북부지방 동쪽은 평야가 좁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이해는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이해의 기초 · 지형은 내인적 작용과 외인적 작용으로 구분 · 세계적 규모의 산지들은 지각판 사이의 경계에서 발달 · 산지와 고원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맑은 물과 공기 공급의 원천임 · 산맥배열과 형태에 따라 강수량의 지역차가 나타남 · 산지사면의 식생분포는 국지기후 조건의 영향을 받음
해안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지역: 고기 잡이 및 양식업이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지방의 해안가에는 갯벌이 많으며 황해안은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큼 · 빙기 때 황해안은 육지의 바닷물이 채워지면서 복잡해졌다. · 황해안 갯벌은 간척하여 농경지, 공장터, 주택지 등으로 이용 · 충청지방의 황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며,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 간척지가 넓게 발달 · 남부지방의 황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해안이다. · 호남지방 해안은 갯벌이 넓고 해안선이 복잡하며 수온이 알맞아 양식업이 활발하다. ·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조석간만의 차가 거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은 자원의 보고이며 교통로로 이용 · 조수간만의 차에 적응하는 특수시설 발달 · 사빈해안에는 사빈, 사구, 석호 등의 지형이 발달 · 동해안에는 사빈과 석호 발달 · 갯벌은 조차가 큰 해안에서 발달하며 양식장과 염전으로 이용 · 갯벌의 간척지 조성은 금·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
하천과 평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강 주변에 발달한 평야 · 평야 지역은 용수 확보에 유리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옛날부터 생활 근거지로 이용 · 평야지역은 논농사 및 도시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천은 서쪽으로 흐르며 오랜 세월 하천 주변에 흙이 쌓여 들판이 만들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하천은 각종 용수공급 및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됨 · 중부지방 서쪽에는 평야가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은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을 함 · 우리나라 하천 중·상류 일대의 평야는 우리 민족의 삶터로 이용 · 황해로 유입되는 하천 하류 일대는 호남평야와 같은 넓은 평야가 발달 · 큰 하천은 황해나 남해로 흐르며 하류에는 범람원 발달 · 하천은 유량변동이 심하며 하천의 교통로 이용에 어려움이 많음
기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은 따뜻하지만 꽃샘 바람이 봄 · 한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아 생활하기 불편함 · 가을철의 높고 푸른 하늘 및 과일 수확에 유리 · 겨울에 차고 건조한 바람은 화재 원인이며 눈이 많음 · 계절별 날씨 관련 속담이 있음 · 계절에 따라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짐 · 비슷한 위도에서도 지역에 따라 기온이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지방 기후는 북부 및 남부의 중간형 · 중부지방은 겨울철에 해안지방과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더 따뜻하다. · 강릉은 태백산맥과 난류의 영향으로 영서지방보다 겨울 기온이 높아 대나무가 잘 자란다. · 늦봄에서 초여름사이에 영서지방에 눈새바람이 분다. · 남부지방은 난류의 영향으로 따뜻하며 비가 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초지는 기온이 낮고, 습도가 일정한 자연환경에서 잘 자람 · 우리나라는 중위도 온대기후 및 몬순기후임 · 기단의 세력에 따라 기후 형태가 달라짐 · 남북방향 산지는 겨울 기온의 동서 차에 영향 · 기온역전현상으로 안개가 자주 낄 · 기온분포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서 낮아짐 · 기온상승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임 · 도시지역은 온실효과와 열섬현상이 나타남

표 8. 계속

	5학년	7학년	10학년
강 수		· 북부지방의 강수량은 지형의 영향을 받아 지역에 따라 다름	· 지구상의 강수량 분포는 위도별 차이가 크지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서 감소함
기후와 생활	· 한 지역의 의식주 생활 모습은 자연 환경에 따라 달라짐 · 기후에 따라 지역별 김치 맛이 다름 · 기후에 따라 집의 구조가 다양	· 생활양식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 · 농경시대에는 자연환경이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나 과학 기술의 발달로 그 제약을 극복하고 있음 · 제주도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독특한 가옥 구조를 지님 · 북부지방은 독특한 가옥구조와 음식이 나타남	·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나 먹거리가 달라짐 · 기후의 지역적 차이는 식생과 토양에 영향 · 인간은 기후에 매우 민감한 존재임 ·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생물자원은 기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주거는 각 지역의 기후적 특성에 적응한 양식
지형과 생활	· 지형과 인구분포도를 통하여 인구 밀도 관계 이해 · 산촌의 생활: 산촌, 버섯재배, 산나물채취, 휴양림, 목축과 고랭지 채소 재배가 이루어짐		· 인간활동에 의한 지형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빨라짐 · 인간에 의한 지형 변화는 환경 문제 초래의 원인임
기 타			· 물부족, 가뭄, 기근 등의 자연재해 발생

과 산지 지형의 경우 5학년에서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7, 10학년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역 구분을 중부·남부·북부 지방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교육 내용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7학년과 10학년에서 다루어지는 개념 자체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형을 북부·중부·남부지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역에 대한 지형에 대하여 학습한다고 우리나라의 지형에 대한 지식이 보다 상세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구분뿐만 아니라 주제의 상세화 수준을 정하는 문제(류재명, 1998, 4)가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998년 개정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개정된 중학교 지리교과서 지역 학습에서 학습의 깊이 대신 깊이를 선택한 것(심광택, 2005, 24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형과 기후 등 자연환경 학습을 위하여 지리 교과에서 기대하는 교육 목표는 다양하다. 그러나 의도하는 교육 목표 중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그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매우 중요하다. 개념의 반복 및 비약으로 학습자의 학습 효과 및 동기가 반감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표 6~표 8의 계열성 분석을 통하여 5, 7, 10학년 지

형 및 기후 단위 개념들의 학년별 계열적 조직은 일부 개념들의 반복 및 논리적 비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초·중등학교 지형 및 기후 단원의 계열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V. 초·중등학교 지형 및 기후 단위 교과서의 계열적 조직 방안

1. 통합 목표 제시를 통한 교과서 내용 조직

지리 교과서의 대단원은 주로 지리학의 학문적 구분에 따르고 있다. 10학년에서 이런 구분은 뚜렷하며, 7학년이 지역지리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의 배열은 결국 학문적 구분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개념, 일반화의 분류에서 강릉 오죽헌의 대나무는 7학년과 10학년의 사실 및 일반화 지식에서 언급되고 있다. 동일한 출판사에서 제작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한 지리 지식이 그대로 언급되고 있다. 계속성이란 교육적 효과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적용된다. 지리 교과서의 경우 계속성의 원리는 ‘공간’, ‘인간과 환경’ 등 보다 상위의 추상적 개념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사실적 지식이 학교 급별로 언급된다면 학생들에게 지리 교과서의 신뢰성 뿐

만 아니라 재미없는 교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을 설명할 때, 초·중등학교별로 원인과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는 반면 원인보다는 현상 즉 결과에 주안점을 두어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교과서의 지면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인까지 기술하면 결과에 대한 언급 부분이 축소될 수 있다. 기후 특징의 원인과 결과 모두를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리 개념의 내용 표준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리학이 지리교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토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단지 지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지리교과 교육과정 내용 구성은 '중요한, 무엇이' 내용으로 선정 및 조직되어 왔다. '중요한, 무엇이'에서는 누구에게 중요한가? 라는 주체가 누락되어 있다. 중요한 것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리학의 내용은 곧 지리교육의 내용이 되는 경향이 강하다. '왜'라는 관점과 지리학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내용들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해안의 석호 형성과 이용 그리고 미래의 석호에 대하여 이해한다'라는 통합적 성취 목표를 제시한다면, 자연환경 단원에서 언급되는 동해안의 석호 형성 원인, 도시 발달에서 언급되는 동해안 충적지상의 도시발달, 환경문제에서 도시화에 따른 석호 오염 문제 및 매립에 의한 석호의 축소 문제, 관광지로의 이용 등 자연환경, 도시, 환경문제, 산업 등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는 학습 내용들을 통합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⁶⁾

지형학자, 기후학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리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선정되는 차원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고려한 지식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 정보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김경자, 2000, 28)에서 학습자들은 교과교육을 통해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이르고, 이를 통해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개인적 수준에서의 창의성 발현(이미숙, 2002, 26)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리 지식 역시 학습자들이 장소 및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및 그에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지리 지식을 학습하는 궁극적 도착점인 학습자가 교과서의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사고의 전환

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형학, 기후학, 경제지리, 도시지리 등 지리학 내 각종 분과 학문은 그 자체의 방법론과 접근 방법을 가지며 동등하게 중요하다. 그러나 학문 분과 모두가 지리교육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선택의 문제가 대두된다. 지리학 내 각종 분과 학문 중 일부가 지리교육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그 분과 학문에 종사하는 지리학자들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며 단일 분과 학문 즉 지형학, 기후학, 도시지리, 농업지리 등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각 분과 학문의 내용이 통합된 자료가 개발되어 지리교육의 학습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연환경의 범위(scope) 선정 및 지식 매트릭스 결정

자연환경의 범위는 A. 산지지형, B. 해안지형, C. 하천과 평야, D. 기온, E. 바람, F. 강수, G. 토양과 식생, H. 기후와 생활, I. 지형과 생활, J. 자연재해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 설정의 사례로 제시한 A~J 항목 중 G. 토양과 식생 및 J. 자연재해는 5, 7, 10학년 교과서에 일부 언급되고 있으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각 범위별로 내용의 과다 및 과소와 더불어 지식의 연계가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자연환경 단원의 계열적 조직을 위해서는 통합 목표 제시와 더불어 자연환경의 범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2의 국가수준교육과정 내용 체계표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형', '기후', '환경 보전',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자연재해', '식생' 등 6개의 중심 개념⁷⁾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4개의 중심개념을,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 언급되었던 '자연재해'가 제외되고 '식생' 개념이 제시되는 등 중심 개념의 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범위와 연계성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학습 경험을 학교 급별 학습자의 학습 상태에 부합되게 범위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본다.⁸⁾

5, 7, 10학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을 뿐, 이전 학년에서 배운 지리 개념에 대한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띤다. 이러한 내용 조직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는 형식적 구분일 뿐 학습자는 지속적으로 특정 교과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학습자의 사고가 심화 확대될 수 있도록 지리 교과서의 내용이

계열적 조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볼 때, 자연환경의 범위 설정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산지지형, 해안지형 등의 범위가 결정되고 나면 각 범위에서 다루어질 내용의 중복 문제와 범위에 포함시킬 내용의 분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높새바람’을 산지지형에서 다룰 것인지, 바람에서 다룰 것인지의 여부, ‘열섬현상’을 기온에서 다룰 것인지 여타 단원에서 다룰 것인지의 여부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범위가 정해지고 나면 각 범위에 포함시킬 차하위 개념들의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각각의 차하위 개념들을 어느 학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즉, 범위와 학년을 축으로 하는 매트릭스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과서는 A~J 범위 안에 포함된 내용 매트릭스를 학년별로 배열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식의 계열적 조직은 5학년 자연환경에서 학습할 A~J 범위 매트릭스, 7학년에서는 5학년 자연환경의 내용을 토대로 한 새로운 A~J 범위의 매트릭스, 10학년에서는 7학년의 내용을 기초로 한 또 다른 A~J 범위의 매트릭스가 작성되어야 한다.

범위의 선정과 더불어 범위 안에 포함시킬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할 것인가 하는 개념 추출 작업은 기존의 개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지리학적 개념에 가까운 것들로서 교육적 개념으로 변안되어 제시된 개념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년, 학교 급에 따른 계열화 및 개념의 상세화(남상준, 2005, 101)가 지식 매트릭스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지리 교과서 출판 제도의 보완을 통한 계열성 확보

통합 목표의 추출, 범위 선정의 문제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지리 교과서 출판 제도의 문제이다. 본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대륙동안’, ‘동안기후’,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 ‘이동성고기압과 온대성저기압’, ‘바람받이’, ‘상승기류’, ‘비그늘’, ‘내적작용’, ‘내인적 작용’ 등 유사 또는 동일 현상을 표현하는 지리적 개념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었다. 초·중등학교 교과서 집필진 및 지리 개념의 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본다.

지리 용어의 일관성, 교과서 개발 인적 자원 등의 어려움은 지리 교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표 9는 현행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체제를 모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경우 대영역 및 중영역까지는 연구·개발 주관 기관이, 소영역과 교과서 영역의 경우 교과서 집필진이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 주관 기관과 각 출판사 간 의사 소통 부재도 지리 지식의 계열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한 원인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연구 개발진 및 교과서 집필진이 연계되어 교육과정 개발의 의도가 교과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진 사이의 연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별도의 교과서만을 집필한다면 다루고자 하는 지리적 소재의 중복뿐만 아니라 계열성 확보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지리 교과서 내용의 학교 급별 계열성 확보를 위하여 학습 목표 제시 이전에 교과서의 특정 코너 가령 ‘본 단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라는 부분을 신설하여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진단평가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을 교육과정을 통하여 확인해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닝(e-learning)의 확대와 더불어 오프라인(off-line)에서도 지리 관련 텍스트를 접하는 경

표 9. 우리나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 관계

지리교육목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교과서 영역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이해	지 형	· 외적 영역 등 · 내적 영역 등	· 조산운동, 조륙운동 등 · 침식, 퇴적, 용식 등	· 지형에 대한 사실, 개념, 일반화 지식
	기 후	· 기후 요소 등 · 기후 인자 등	· 기온, 바람, 강수 등 · 지형, 해발고도 등	· 기후에 대한 사실, 개념, 일반화 지식
연구·개발 주관 기관	공신력있는 연구 개발 기관(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평가원 지리과교육과정 개정위원회 등)		각 출판사	

우가 보다 많고 수월해졌다. 그러나 지리 교재의 중심이 교과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심화되는 경쟁 체제 속에서 지리 교과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의 질이다. 초·중·고등학교 지리 교육이 별개의 양상으로 진행되는 원인 중 하나는 역시 학습자들이 접하는 교과서 내용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리 관련 개념이 직접 교과서에 언급되는 것 보다는 중등학교에서 언급되는 개념들을 설명식으로 기술하여 개념 자체가 교과서에 그대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가령, 북부지방의 폐쇄적 가옥구조를 '북부지방의 한옥은 사방이 건물로 막혀있다', 동고서저의 지형을 지도상에 '높고 낮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모시, 삼베, 무명 만드는 과정, 계절별 음식 소개(교육인적자원부, 사회 5-1)가 차지하는 분량이 중단원 I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 과 비교해 볼때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교생들의 흥미를 끌고 도시적 생활 풍토에서 자라 사라져가는 전통적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자세하게 수록한 것으로 여겨지나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소재들로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VI. 결론 및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중요 학습 요소의 반복을 의미하는 계속성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는 계열성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 대상은 5, 7, 10학년 교과서로서 지형 및 기후 단원의 학년별 계열성을 분석하였다. 계열성을 담보하지 않는 계속성의 경우 자칫 내용의 반복으로서 학습 내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과서 분석 연구는 주로 각 출판사별 내용의 횡적 비교에 주안점을 두므로써 학습자 입장에서 초·중등학교에서 배울 지리 지식의 계열성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동일 출판사에서 제작된 중등학교 교과서를 선정하여 초·중등학교 간 교과서 내용의 계열성에 주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성과 계열성은 불과분의 관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2개 주의 교육과정 분석과 우리나라 교과서의 자연환경 내용을 사실, 개념, 일반화된 지식으로 구분하여 지식의 계열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연환경의 주요 개념인 지형과 기후는 학교 급에 따라 계속적으로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차하위 개념들의 계열적 조직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중등학교 지형 및 기후 단원의 계열적 조직을 위한 방안은 다양할 것이나 전통적으로 지리학의 학문적 구분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는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학습 내용들을 통합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의 범위 선정 및 각각의 범위에 포함될 차하위 개념들을 선정하여 학년별 지식 매트릭스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 목표 제시, 자연환경의 범위 선정과 더불어 교육과정 연구·개발진과 교과서 집필진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진 사이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 상 학교 급에 따라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내용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7학년 중부, 북부, 남부 지방의 지리 내용이 11, 12학년 한국지리의 지역지리 단원과 어떻게 다르며 계열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1, 12학년의 V단원 '여러 지역의 생활' 부분이 지역지리로 구성되어 있어 7학년의 지리 내용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 지리 지식의 학교 급별 계열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계열성 확보란 '쉬운, 단순한, 구체적'인 것에서, '어려운, 복잡한, 추상적인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쉽다', '어렵다', '단순하다', '추상적이다'라는 근거 및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지리 교과서는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습자 입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

- 1) 고등학교 교사들은 초·중학교 교사들에 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자신

- 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과서와 더불어 전국단위 시험이나 각종 참고서에 나오는 문제들까지도 염두에 둔, 즉 평가까지도 고려한 교수-학습이 진행될 것이라 판단된다.
- 2) 지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식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초·중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지형과 기후 단원의 초·중등학교 간 계열성 확보는 이미 지리 교육과정 조직에서 언급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문서가 분석 대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 및 학습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문서보다는 교과서 내용에 근거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를 계열성 조직을 위한 실태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향후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3) 초등학교의 경우 국정교과서이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중등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다양하다. 동일 출판사에서 제작된 교과서를 선정한 이유는 7학년 및 10학년 교과서의 내용 연계성을 횡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동일한 출판사에서 제작된 교과서의 내용 연계성이 보다 잘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4) 본 연구자는 ‘황해안은 비교적 수심이 얕다’, ‘황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라는 지식을 사실로 분류하였으나 검토자의 경우 사실 또는 일반화로 분류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항목들은 세 명의 의뢰자 및 연구자가 함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 5) 구성요소에서 자연환경이 들어간 내용들에 대해서만 발췌하여 수록. 3-6학년과 7-10학년의 기술 체계가 상이(단원목표와 구성요소 항목의 진술 형태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7-10학년에서 개조식으로 기술한 구성요소를 단원 목표를 참고하여 서술식으로 재진술하였다.
 - 6) 이러한 것은 교수·학습 수준에서 교사의 몫일 수도 있으며, 교사 차원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리교육의 시작인 교육과정에서부터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 개념에 대한 정의와 분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개념을 중심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 8) 특정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분석 결과가 지리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공우석(2005)은 지역의 자연환경 조사 내용을 분류한 연구에서 대분류를 위치와 면적, 지형과 지질, 기후, 하천과 해양, 토양, 자연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송호열(1999)은 중등학교 기후 단원의 내용 선정과 조직을 ‘기후 요소별 내용 구성’, ‘기후 지역별 내용 구성’, ‘계절별 내용 구성’, ‘주요 기후 현상별 내용 구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할 때 대분류 및 중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교과서 계열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분류까지 일치된 합의가 요구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봉규·이종성, 1985, 교육과정 교육평가 신강, 형설

출판사, 서울.
 공우석, 2005, “지역의 자연환경 분석과 지리교육에의 적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1), 41-51.
 교육부, 1998, 사회과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0, 사회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울.
 권오정·김영석, 2003, 사회과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교육과학사, 서울.
 김경자, 2000, 학교교육과정론, 교육과학사, 서울.
 김진국, 2005, “지리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교원교육, 21(1), 15-31.
 남상준, 2005, “제 7차 초·중등 지리교육 내용 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교원교육, 20(4), 93-109.
 류재명, 1998, “지리교육내용의 계열적 조직 방안에 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6(2), 1-18.
 민경화, 2001,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분석: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국토지리 부분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강용, 2002,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 제시 방식에 대한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9(2), 1-27.
 박종천, 1993, 초·중·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의 연계성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 일·전종한, 2003, “사회과 지역학습의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1(1), 81-92.
 손용택, 2004, “중남미지역 지리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및 한국관련 내용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2), 303-312.
 송호열, 1999, “중등학교 기후 단원의 내용 선정과 조직 원리”, 지리·환경교육, 7(1), 255-282.
 신동승, 1995, 국민학교 교과서의 지명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광택, 2005, “일본 중학교 지리교과서의 학습 내용-활동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3(2), 247-261.
 심정규, 2002, “제 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내용의 비교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0(3), 43-55.
 오경섭 외, 2000, 고등학교 10학년 사회, (주)도서출판 디딤돌, 서울.
 오경섭 외, 2000, 중학교 사회 1, (주)도서출판 디딤돌,

- 서울.
- 이경한, 2001, “추상성 정도에 따른 지리교과의 개념학습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지리·환경교육*, 9(1), 1-18.
- 이미숙, 2002,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내용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지식의 성격”, *교육과학연구*, 33(1), 23-38
- 이상선, 1995, 한국과 일본, 대만의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비교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 민, 1995,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과서 비교분석: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주, 1994,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분석: 자연단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선진, 1993, 초·중·고등학교 지구과학 실험내용 및 연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욱, 2002, “지리교육내용의 표준설정 방법”, *대한지리학회지*, 37(3), 276-291.
- 최일순, 1991,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비교·분석: 자연환경과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8, 제 7차 교육과정의 상세화를 통한 사회과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
- 홍용표, 2003, 제 7차 사회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경제교육 내용의 계열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ulus, N., Bartley, M., and White, R., 1999, *Standards Principles for Principals*, Council for Basic Education, 1-31.
- Poul, C. B., 2002, *Social Studies Curriculum Standards*, Tennessee Department of Education, ED 473 906.
- Urbatsch, L., 1997, *Louisiana Social Studies Content Standards*, State Standards for Curriculum Development, ED 430 871.
- 최초투고일 : 2005. 10. 28.
최종접수일 : 2005. 11. 17.
- 교신 : 김진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5번지
송호고등학교
(ginkuk@hanmail.net, 031-415-8684)
Correspondence : Jin-Kuk Kim, ginkuk@hanmail.net